

# 모던K 수강생이 꼭 알아야 하는 뮤지션 10인

## 거스리 고반 (Guthrie Govan / 기타리스트 / 1971.12.27~ / 영국)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테크닉과 이론적 지식을 결합한 연주로 기타리스트의 거장인 조 새트리아니, 그렉 하워 등에게 찬사를 받은 그는 1990년대 말부터 영국 기타 전문지 <기타 테크닉스>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음악 전문지 <기타리스트>가 주최한 1993년 '올해의 기타리스트'로 선정된 그는 2000년 슈퍼 그룹 '아시아'의 기타리스트로 발탁되어 활동한 후 2006년 1집 [Erotic Cakes]를 발표했으며, 현재 솔로 활동 및 음악 전문지와 웹 사이트를 통한 기타 강의를 하고 있다.

## 한스 짐머 (Hans Zimmer / 작곡, 편곡가, 영화음악가 / 1957.9.12~ / 독일)



'에픽'으로 통칭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한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있어서는 당대 최이며, 별명은 '걸어 다니는 오케스트라' 라고 한다. 존 윌리엄스, 엔니오 모리코네와 더불어 현존하는 영화 음악가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며, 그가 참여한 작품을 단 한 편도 안 본 사람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참여한 작품이 많으며 하나하나의 작품들의 완성도는 매우 훌륭하다. 1988년 영화 '레인맨'을 시작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다크 나이트', '배트맨vs슈퍼맨', '인터스텔라', '쿵푸 팬더' 등 지금까지 100여편의 영화, 드라마, 게임 OST를 제작하였다.

## 샤카칸 (Chaka Khan / 보컬리스트 / 1953.3.23~ / 미국)



아레사 프랭클린을 이어가는 소울 알앤비 디바로 1970년대에는 루퍼스(Rufus)란 그룹의 멤버로, 1980년대는 솔로 싱어로서 두 차례나 '화려한 시절'을 누린 흑인 보컬리스트이다. 그래미상을 열 차례나 수상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숭배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유의 쏘는 듯한 창법이 쏘울 창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펑키 소울 음악에 특화된 보컬이라 할 수 있으며,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제임스 브라운, 퀸시 존스, 엘라 피트잘드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미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 필 페리 (Phil Perry / 보컬리스트 / 1952.1.12~ / 미국)



국내에서 큰 인지도가 없는 보컬리스트이나 그를 알게 된다면 절대 잊을 수 있는 음색에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뛰어난 음역대와 발성 그리고 그루브는 R&B, 소울, 발라드와 펑키 등 장르를 넘나들며 전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세션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필 페리는 미국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보컬 그룹인 the Montclairs의 멤버였으며 스스로 자신의 음악적 지향점에 대해 the Montclairs에 멤버로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조화로운 음악의 추구라고 대답 하곤 했다. 후에 리차드 샌린(Richard Sanlin)과 듀오로 활동을 하며 캐피탈레이블에서 두 개의 앨범을 내기도 한다. 그 듀오의 첫 번째 싱글은 실패했고 후에 각자 송 라이터와 프리랜스 프로듀서로 꾸준히 활동한다. 필 페리의 1991년 캐피탈레이블에서 발매된 솔로 데뷔LP [The Heart of the Man]는 앨범 전체에 아우러지는 사랑의 감성이 충분히 여필되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소울 리듬에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려진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그는 가사를 직접 써서 그런지 음악에 몰입을 잘 하였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규앨범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지만 그런데는 이유가 있다. 앨범을 발표한 이후 재즈씬의 폭발적인 러브콜로 인해 세션 보컬리스트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계속 투어활동을 했으며 솔로 재즈 연주회도 가졌고 여러 가수들과 프로젝트 레코딩 작업도 했다. 데이브 그루신, 프레디 허버드, 조지 듀크, 네이지, 빌 워더스, 리 릿나워, 세르지오 멘데스, 조지 벤슨, 포플레이 등 당대 최고의 재즈뮤지션들과 많은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발매한 'A better Man' 앨범이 빌보드 컨템포러리 재즈차트에 1위를 할 만큼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패리스 고블 (Parris Goebel / 안무가, 프로듀서 / 1991.10.29~ / 뉴질랜드)



빅뱅, 포미닛, CL, 아이콘의 안무가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패리스 고블은 뉴질랜드 출신이다. 본인이 설립한 리퀘스트 크루(ReQuest Crew)나 팀 로열 패밀리(Royal Family) 등을 이끌고 지난 2009년부터 세계적인 댄스 대회인 월드 힙합 댄스 챔피언십(World Hip Hop Dance Championship, 이하 HHI)에 출전, 각 부문을 석권하고 유명 뮤지션의 안무를 짜며 유명세를 쌓았다. 이후 제니퍼 로페스(Jennifer Lopez)의 싱글 "Goin' In"을 필두로 리아나(Rihanna), 자넷 잭슨(Janet Jackson), 니키 미나즈(Nicki Minaj) 등 유명 가수의 안무를 짜고 디렉팅하며 그 실력을 당당히 인정받았다. 영화 <스텝 업: 올 인>에도 출연했으며,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곡 "Sorry"의 안무부터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모두 담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패리스 고블의 가장 큰 장점은 독특하고 스타일리쉬한 춤이다. 물론 힙합이 베이스이기에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만의 개성을 춤에 적극 반영해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낸다. 비슷한 춤을 추더라도 몸의 방향, 시선 처리, 표정 연기, 섬세한 손끝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고, 비틀어 특색있게 가꿔낸다. 패리스 고블은 이런 자신들의 스타일에 '여성의 자신감과 강인한 내면에 담긴 공격성을 결합한 스타일'이라며 '폴리스웍(Polyswag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작은 폴리스웍의 물결은 유튜브를 통해 미국으로 뻗어 나갔고, 어느덧 세계 댄스 씬의 트렌드마저 점령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 50개국 3700여 명의 댄서가 참여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 '힙합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HHI 대회에 한동안 유사한 스타일의 안무가 범람할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패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음반 제작에까지 나서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연출 및 편집을 직접 하여 종합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코 파스토리우스 (Jaco Pastorius / 베이스리스트 / 1951.12.1 ~ 1987.9.21 / 미국)



세계 최고의 일렉트릭 베이스리스트, 하지만 지나친 자만과 약물로 재능을 낭비한 비운의 천재

자코는 베이스뿐만 아니라 재즈 역사계의 큰 획을 긋고 떠나간 인물이다. 대략 자코를 기점으로 해서 밴드 뒤에서 묵묵히 리듬 멜로디를 받쳐주던 베이스가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마커스 밀러, 빅터 우튼, 리차드 보나 등 많은 베이스리스트들이 그를 존경하고 쫓고자 했으며, 사실 베이스리스트들 중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 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세상에 자코를 보내고 베이스가 뭔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후 서둘러 거둬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음악적으로 자코가 남긴 영향은 일렉트릭 베이스가 멜로디컬한 악기도 될 수 있다고 인식시켜준 동시에 '플렛리스 베이스'를 이용한 음악적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이다.

맥스 마틴 (Max Martin/ 프로듀서,작곡가 / 1971.2.26~ / 스웨덴)



지금 팝 시장은 맥스 마틴(Max Martin)의 세상이나 다름없다. 케이티 페리(Katy Perry)의 'Roar',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의 'Problem',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Shake It Off', 엘리 굴딩(Elle Goulding)의 'Love Me Like You Do'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쓴 많은 노래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야말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릴 만하다. 때문에 많은 가수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간절히 승낙을 기다린다. 작곡가, 프로듀서로 업계에 뛰어들어 20년이 넘었음에도 Max Martin의 주는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그는 1991년 It's Alive라는 글램 메탈 밴드로 데뷔하여 락씬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상업적으로 실패하면서 밴드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작곡에 재능이 많았던 맥스 마틴은 체이론 레코드에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발탁되었고, 레드넥스,이타입, 에이스 오브 베이스 등 스웨덴에서 유명한 그룹들을 프로듀싱을 하게 된다. 프로듀서로 성공한지 2년만에 맥스 마틴이 프로듀싱한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는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를 데뷔 시키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았으며, 그 이후 브리트니 스피어스, 셀린 디온, 앤싱크, 본조비, 핑크, 어셔, 케이티 페리, 켈리 클락슨, 저스틴 비버, 제시 제이, 마론5,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란데 최근 그래미를 휩쓴 위켄드까지 최고의 팝아티스트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게 된다. 세련된 팝과 락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사운드가 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지금까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이 20편에 달하며, 탐10에 링크된 곡이 30곡이 넘는다. 맥스 마틴은 20년이라는 시간동안 대중들의 기호에 잘 부응한 오늘날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칭할 만하다.

빌 에반스 (Bill Evans / 재즈피아니스트 / 1929. 08. 26 - 1980. 09. 15 / 미국)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미국의 재즈피아니스트로, 1956년 New Jazz Conception을 발표하여, 기존의 재즈에서 서정성과 감미로움을 크게 부각시켜서, 재즈계의 쇼팽으로 불리곤 한다.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특유의 작곡기법으로 음악평론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트리오 연주 시 다른 연주자들과 대화하듯이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인터플레이) 이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재즈 연주에 있어 인터플레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여 하였다.

아론 스피어스 (Aaron Spears / 드러머 / 1976.10.26~ / 미국)



3세때부터 드럼스틱을 잡았던 아론 스피어스(AARON SPEARS)에게 교회밴드 활동과 퍼커션연주자인 아버지의 존재는 그가 오늘날 세계적인 드럼연주자가 되는 밑거름이었다. 그후 LA에 위치한 하퍼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지역 밴드인 Gideon band의 설립자중 한 명으로 드러머로서 활동하였지만 2003년에는 IT컨설팅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원의 삶을 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Usher의 투어 밴드 오디션에서 운 좋게 합격하여 Usher와 함께 활동하게 이른다. Usher와의 활동을 통해서 아론 스피어스에게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SNL(Saturday Night Live)의 출연과 2004년에 프로듀서로서 그래미상의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2005년도에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연주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그의 플레이는 Jeff Davis, Gerald Heyward, Steve Smith, Billy Cobham, Dave Weckl, Steve Gadd, 그리고 Brian Frasier-Moore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아론은 자신의 플레이가 다른 드러머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희망한다. 파워풀하며 흑인특유의 그루브를 지닌 아론스피어스는 현존 하는 드러머 중 최고로 인정 받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 하고 있다.

제이 지 (JAY Z / 힙합 프로듀서,랩퍼 / 1969.12.4~ / 미국)



동부힙합과 뉴욕의 왕으로 불리는 제이지는 총 음반 판매량 5000만장, 그래미 어워드 수상, 두 개의 레코드사의 사장, 농구팀 '뉴욕 네츠'의 공동구단주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미국 내 가장 성공한 힙합 뮤지션이다. 첫 앨범이자 히트 앨범인 《Reasonable Doubt》는 롤링 스톤지에서 '가장 완벽한 앨범 500'에 들었다. 2000년에 발매한 《Blueprint》는 작업한 지 오직 2주밖에 안됐으나, 빌보드차트 1위,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자가 되고, 첫 주에만 42만장이 팔리는 등 성공을 누렸으며, 컴백앨범인 《Kingdom Come》은 첫 주에만 68만장이 팔렸다. 2008년 4월 4일 비욘세와 결혼을 하여, 한국

에서는 비욘세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다.